



우석대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교양대학 교수·교무처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김성희 본부장이 2025 지속가능발전 위한 대학혁신포럼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날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김성희 본부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교육과정 인증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교수법 개선과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성과 환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희 본부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교육부의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사조직 개편과 융합교육 강화,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이영훈 학생(심리학과 1년)이 대표를 맡은 원리이프 팀과 박시연·이세을(이상 약학과 3년)·최수민(물리치료학과 3년) 학생으로 구성된 'W-ing' 팀이 사업 참여 성과를 학생 관점에서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이웃돕기 물품 기탁

김제시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영)이 지난날 29일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수정과 100박스 총 200만원 상당이며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영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에 감사드리며"라며 "기탁된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과 시설에 전달돼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물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김제시, 종합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교육 진행

김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날 29일 종합민원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연중 총 23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지적과, 교통행정과, 세정과 건축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둘째·넷째 주 목요일 진행되며, 민원 현장의 바쁜 여건을 고려해 짧고 집중도 높은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원응대 기본원칙,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 요령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창구는 시민과 행정이 직접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민원응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박노태 기자

“6년동안 즐겁게 학교생활 마쳐 행복”

전북도립여성중고교, 제26회 졸업식
졸업생 53명 배출, 만학의 열정 결실
내일까지 신입생 총 60명 모집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눈에 띄는 진학 성과를 거두었다. 중학교 졸업생 24명 중 2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 29명 중 16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등 4개 대학 9개 학과에 합격하며 뜻깊은 학업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배움에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여러분이 전북의 희망"이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김형태 교장은 "학생 한 분 한 분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움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성인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교는 오는 2월 3일까지 신입생 60명(중 30명, 고 30명)을 모집한다. 보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이만호기자



정읍체육트레이닝수영장, 내달 8일까지 임시휴장

정읍시가 체육트레이닝센터 수영장의 수조 도장 및 시설 보수를 위해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36일간 임시 휴장하고, 재개장과 동시에 토요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노후한 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결정됐다.

휴장 기간에는 수조 전체의 도장(페인트) 작업과 계단 하자보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특히 쾌적한 수영 환경을 위해 청호에 차양(선팅) 필름을 부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공사도 함께 이루어져 한층 수준 높은 체육 시설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수영장은 2025년 기준 연간 이용객이 약 9만2000여명에 달하는 지역의 대표 체육 시설이다. 현재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10개의 감속밴이 운영돼 270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시는 이처럼 높은 이용 수요를 고려해 공사를 마친 후 재개장 시점부터는 토요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오전 9시에 시작하던 토요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로 3시간 앞당겨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영장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새벽 시간대에 수영을 즐기려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진영 시설운영과장은 "이번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반적인 시설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휴장 기간 불편을 겪을 시민들을 위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보다 쾌적해진 환경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민연금공단, 채용박람회서 청년 구직자 맞춤 멘토링

850여명에 취업 노하우 전달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날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해 연금복지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서 공단은 별도의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구직자 850여 명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직접 상담사로 참여해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은 장애인 및 청년인턴 채용 전용 상담 부스도 별도로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입 장벽 완화에도 힘썼다.

채용 성과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에서 공단 직원 4명이 입상했으며, 이들이 이번 행사에서 직접 연사로 나섰다.

최우수장은 유현준 대리, 우수상은 차영현 주임, 장려상은 김정원 주임과 이현준 주임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유현준 대리와 차영현 주임은 '공공기관 취업 성공' /오상근 기자



이야기 발표를 통해 자신만의 취업 전략과 면접 준비 비결을 공개했다. 이어 열린 '취업비결 공개 토크콘서트'에서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일반직 210여 명, 공무원직 40여 명, 기금운용직 50여 명 등 총 3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인턴 250여 명도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연금기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주천면 지사협, 육목정산장에 착한가게 현판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날 29일, 육목정산장(대표 오영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지역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으로, 소상공인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육목정산장 오영열 대표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으며, 노환순 주천면장은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번안면, 2026년 새마을지회 총회

장수군 번안면 새마을지회는 번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새마을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심의와 기타 안건 논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되짚으며 새해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또한 총회 이후 회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시간이 마련돼 현장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종현 번장은 "새마을지회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봉사는 번안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희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날 30일 지리산 비래봉 눈썹축제장에서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담긴 리플릿 배부와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신상고발법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원시는 올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 /남원=김기두 기자



동 권리 증진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아동의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계화면, 희망소통대화회 장학금기탁 따라

계화면(면장 김화순)에서는 지난날 29일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회 행사에서 포순이 어머니회(회장 최영순)와 두일전기 이원준 대표가 참석해 부안군공공인재육성재단에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계화면 포순이 어머니회는 평소 지역 치안활동 지원과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 인재 육성에 뜻을 보았다. 두일전기 이원준 대표 역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번안면 주민들, 한마음 장학금기탁



부안군은 지난날 29일 번안면 주민회에서 열린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회 행사에서 번안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이 정성열 이장, 송포마을 조동선씨, 민복건설 김중대 대표가 부안군공공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번안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기탁자들은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다. /부안=김석진 기자